

현대 사회생활의 기반은 전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전기는 스위치만 넣으면 언제 어디서나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하는 국민은 흔하지 않다.

또한, 행정서비스, 은행결제나 전자상거래, 교통신호제어와 요금정산 등 모든 사회시스템이 전기와 ICT로 이루어졌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국민은 전기 공급이나 통신서비스의 중단이 자주 발생하면 전기와 ICT시스템의 고마움을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를 향해 전기신호의 송출을...



이복희
인하대학교 IT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기기술자와 전문가들의 슬기와 노력으로 전기 공급과 ICT시스템의 신뢰성은 대단히 높아졌으며, 빈번한 서비스 중단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걱정할 바는 아니다.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2011년에 발생한 9·15대정전사고도 전기기술자의 적절한 대처와 기지 덕분으로 무난히 극복하였으며, 사고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 억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이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21세기는 지난 산업화 및 성장 위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지식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기와 ICT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현대사회를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충족한 전기에너지와 스마트한 ICT 없는 선진국과 행복 시대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와 ICT의 중요성과 전기기술자의 전문성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전기기술의 중요성을 우리 전기기술자 스스로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갈 에너지원과 사회시스템을 창출하고 지탱해 온 전기기술자는 IMF외환위기와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여파 속에 활기마저 잃었으며, 산업화 역군으로서의 의연하고 당당했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금 직면한 우리의 현실은 과학기술입국의 원동력이었던 전기기술자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진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경제의 창조를 이끌어 갈 주역인 젊은 전기공학도에게서도 패기가 넘치는 도전을 기반으로 하는 꿈과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로 변천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사회현상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희망과 꿈이 용솨음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활기찬 환경으로 전환되도록 전기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과학기술자는 우선적으로 위풍당당했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용기가 필요하고, 미래를 열어갈 젊은 전기공학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의 조성에 동참하고 기여해야 할 것이다.

발전이 지속가능한 전기와 ICT는 차세대 과학도의 꿈과 희망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은 날로 번창할 것이며, 우리 전기기술자들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청마해인 2014년 깨어남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기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행복한 삶을 열어갈 새로운 비약을 향하여 출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성취를 위한 전기인 모두의 매진을 기대해 본다. 